

더 진화하는 손흥민

세계 최고 EPL서 '톱클래스' 분류...공간능력·컨트롤 등 장점



서도 그 아름다움이 잘 드러났다.

경기 시작부터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던 손흥민은 전반 10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냈다. 후반에서 수비수 알더베르트가 보낸 롱패스를 크리스탈렐리스 지역 오른쪽에서 잡아낸 손흥민은 박스 안으로 침투한 뒤 왼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여러 가지 '클래스'의 합작품이지만, 일단 환상적인 '터치'가 가장 돋보였다.

축구선수들에게 가장 어려운 패스 중 하나로 꼽히는, 머리 뒤에서 날아오는 롱패스를 달려 들어가면서 허벅지(혹은 골반)로 받아냈는데 마치 손으로 잡는 것처럼 발 앞에 떨어졌다. 이 퍼스트터치가 있었기에 득점이 가능했다.

이어진 두 번째 컨트롤도 일품이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슈팅을 때리는 적 방향을 접어 수비수를 역동작에 빠뜨렸고, 다시 먼 포스트로 차는 척하더니 가까운 골포스트를 노려 골키퍼까지 속였다. 월드클래스였다.

전반 23분에 나온 추가득점 역시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손흥민은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오리에의 크로스를 반대편에서 눈스톱 왼발 발리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패스를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한 셈이니 또 다시 '퍼스트터치'가 빛났던 장면이다.

예전에는 '빠른 선수'만으로 부각이 됐던 손흥민이 점점 더 다양한 무기들을 온몸에 장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한 생존법을 터득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PL 시즌을 거듭하면서 첫 터치가 부정확했을 시에는 자신의 장기인 '폭풍 질주'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을 손흥민이다.

EPL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틈을 보이면, 실수가 나오면 여지없이 상대 수비수나 공격수의 먹잇감이 되는 정글이다. 그곳에서 손흥민이 진화하고 있다.

뉴스

그냥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아주 빠르게, 그것도 정확한 처리가 요구되는 현대 축구의 흐름 속에서 '퍼스트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속도가 생명인 시대에서 퍼스트터치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이미 생산적인 전개는 어렵다고 봐야한다.

조금이라도 부정확한 컨트롤이 나오면 지체 없이 2~3명이 달려든다. 찬스가 날아가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빌미가 제공된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는 자세로 플레이에 임해야한다. 첫 터치가 허비를 가른다. 일단 퍼스트터치가 가능해야 다음 전개가 가능하다.

손흥민이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리그로 평가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톱클래스로 분

류되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공간'과 관련된 능력들이다.

빠른 주력을 지닌 손흥민은 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소위 '오프 더 볼' 상황에서 공간을 찾아들어가는 움직임부터 공을 달고 공간을 헤집는 능력까지 탁월한 면모를 자랑한다. 그 스피드를 그대로 살려 목직함 슈팅을 날릴 수 있고 그 슈팅이 완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아 상대 수비는 더 까다롭다. 참고로, 그가 뛰는 것만으로 동료에게 찬스가 제공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로 뛰는 손흥민'이 많이 부각되지만, 사실 손흥민은 터치도 정교한 선수다. 굳이 가를 것도 없다. 정확한 퍼스트터치로 공을 제대 몸에 붙여놓았을 때 드리블 돌파도 가능한 법이다. 현지 찬사가 쏟아진 지난 14일 크리스탈렐리스전에

류현진, 다음 등판 22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이번 시즌 들어 4경기 맞붙어 무승1패 평균자책 4.87



류현진(32·LA 다저스)이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설욕에 나선다. 다저스 구단 소식을 전하는 다저인사이더는 16일(이하 한국시간) "다저스는 이번주 콜로라도 로키스와 벌이는 21~23일 3연전에 클레이튼 커쇼, 류현진, 위키 불러를 차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오는 22일 오전 10시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선

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콜로라도와 4차례 맞대결을 벌여 무승 1패 평균자책점 4.87을 남겼다. 통산 성적은 14경기 4승 7패, 평균자책점 4.94다.

최근 콜로라도전 기억은 좋지 않다. 지난 5일 콜로라도와 맞대결에서 4⅓이닝 6피안타 4볼넷 5탈삼진 3실점으로 크게 흔들렸다.

류현진은 8월12일 애리조나 다이나몬드백스전(7이닝 무실점) 이

후 4경기에서 극도의 부진에 빠졌는데 좋지 않은 흐름은 콜로라도전까지 이어졌다.

8월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5⅓이닝 4실점), 24일 뉴욕메츠전(4⅓이닝 7실점), 30일 애리조나전(4⅓이닝 7실점) 그리고 9월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4⅓이닝 3실점)에서 크게 흔들렸다.

8월12일 애리조나전까지 1.45이닝 평균자책점은 콜로라도전 이후 2.45까지 치솟았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강력한 후보에 올랐던 류현진의 임지가 흔들리기도 했다.

긴 부진에 빠져있던 류현진은 지난 15일 뉴욕 메츠와 원정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역투를 보이며 반등했다. 이날 다저스가 0-3으로 지면서 류현진은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으나 긴 부진을 끊는 데 성공했다.

류현진의 이번 시즌 성적은 12승 5패 평균자책점 2.35다. 15일 메츠전 호투로 반등한 류현진이 좋은 흐름을 다음 등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다저스는 18, 19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에 로스 스트리플링, 토니 곤살레스를 각각 선발로 내세울 예정이다.

롯데 이대호·손승락, KBO리그 역대 첫 기록 나란히 도전

이대호, 10년 연속 200루타에 단 1루타 남겨...손승락은 10년 연속 10세이브 눈앞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37)와 손승락(37)이 전인미답의 진기록에 도전한다.

15일 기준 이대호는 이번 시즌 199루타를 작성 중이다. 남은 경기에서 1루타를 더하면 아무도 밟지 못한 역대 첫 번째 '10년 연속 200루타' 고지에 오르게 된다.

현재 136경기를 치른 롯데의 잔여경기(8경기)를 고려하면 이대호의 기록 달성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2001년 롯데에서 1군에 데뷔한 이대호는 해외에 진출했던 2012~2016시즌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0루타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개인 한 시즌 최다 루타인 322루타를 달성했다.

또한 이대호는 '6년 연속 20홈런' 기록에도 도전한다.

이대호는 2009시즌 28홈런, 2010시즌 44홈런, 2011시즌 27홈런, 2017시즌 34홈런, 2018시즌 37홈런을 쏴아 올렸다.

이번 시즌에는 127경기에 출전해 홈런 15방을 쏴아 올렸는데 5홈런만 추가하면 역대 네 번째 진기록을 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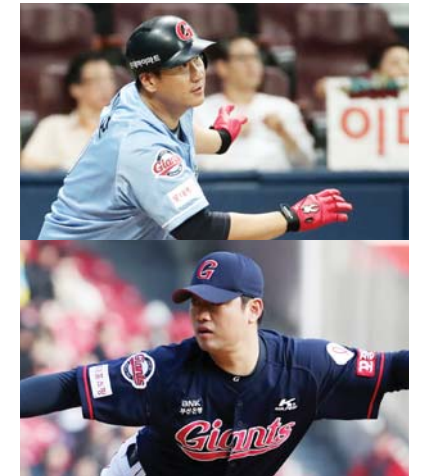
KBO리그 최다 연속 시즌 20홈런은 이승엽(은퇴)이 삼성 라이온즈 시절 1997~2012년(2004~2011년 해외 진출) 달성한 8시즌이다.

최형우(KIA)가 2013~2018년 6시즌 연속으로 2번째 기록을 달성했고 박병호(키움)가 지난 8월 역대 세 번째로 이 기록을 썼다.

손승락은 KBO리그 역대 첫 번째 '10년 연속 10세이브'에 도전한다.

2005년 1군 무대에 데뷔한 손승락은 2010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시절 26세이브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세이브를 처음으로 올렸다.

그 이후 손승락은 지난해까지 매년 10세이브 이상씩을 거두며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자리잡았다. 개인 한 시즌 최다 세이브는 2013년 기록한 46세이브다.



15일 기준 손승락은 9세이브(4승3패)를 기록 중인데 세이브 상황에 마운드에 올라 단 한 번만 승리를 지키면 10세이브 고지를 밟을 수 있다. 또한 통산 599경기를 출장한 손승락은 600경기 출장까지 단 1경기만을 남겨뒀다.

손승락이 1차례만 더 경기에 나서면 역대 21번째 6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다.



명품 화순 행복의 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u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